

요 약 문

제목 : 부산시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단계별 처리실태와 효율적 회수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EPR품목을 중심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확립을 정책목표로 삼는 일은 보편적인 흐름이 되었다. 2차 국가폐기물 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정책은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요구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정확한 폐기물통계의 확보, 그에 근거한 폐기물 관리계획의 수립, 수립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민, 기업, 행정 등 경제주체별 협조체계의 구축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에게 당연한 실천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의 구축은 폐기물의 발생자가 결국 사람이며,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체가 결국 시민들과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천과제 중 출발점이자 최종 귀착점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2003년 1월 1일 부터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이하에서는 EPR로 약칭함)는 바로 이러한 경제주체별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도입된 제도이다. EPR 제도는 도입당시부터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EPR 제도 시행이후 재활용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재활용업체의 실적조작 등 제도 취지를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여 통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고 EPR 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한 시민단체와 수거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EPR 제도 시행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체계 및 재활용율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EPR 대상품목의 배출단계별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EPR 제도의 개선방안 및 보다 실질적인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